

화순군, 독거노인생활지원사 활용 노인 자살예방 매진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오는 26일까지 3회 걸쳐 매주 금요일 80여 명 대상 실시

화순군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3회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화순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생활지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노인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확인하

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방법 및 정신건강 앱 「터치마인드」 설치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독거노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 노인 자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화순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마음건강주치의 무료 상담 서비스' 등 군민의 정신건강과 자

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순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다"며 "이번 독거노인생활지원사 역량강화교육으로 찾아뵙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점검하고 자살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061-374-4600, 1577-0199)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함께하면 금연 할 수 있어요!” 담양군,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전남도립대학교 범춘제 축제장

담양군은 지난 15일과 16일 전남도립대학교 범춘제 축제장에서 금연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흡연을 저하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및 사업장 등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 클리닉에 참여한 등록자에게는

금연 전문상담사의 1:1 금연 상담, 흡연 습관과 니코틴 의존도 등을 검사하고 금단 증상 완화를 위해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등), 행동 강화 물품 등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금연을 생각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신청은 금연 희망자가 8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실태 점검

구례군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사항이다.

점검은 실무자 교육, 부서별 자체 점검, 전담 부서 순회 점검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과 관련하여 지난 12일에는 중대 재해 대비 의무 이행 사항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 함양과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한 사전 교육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구례군 중대재해 예방 전담 부서인 안전교통과 중대재해예방팀이 주관했다. 전 부서 실무자 50여 명에게 사고 발생 시 적용받는 법령의 근거, 처벌 수위,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 1호, 2호 판결내용 등을 교육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산재 예방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 위험성 평가, 공직자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작업환경측정과 근골격계 유해 요인 파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500만 나주관광시대 위원회' 출범...1박2일 팸투어 진행

관광기획·미식·여행·레저·학예연구 등 관광 성공사례 전문가 싱크탱크 구성



나주시가 국내 관광·여행 콘텐츠 분야 선구자들과 500만 나주 관광시대 전략 수립에 머리를 맞댄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시정방침인 '융성하는

문화관광' 구현과 올해 신년 비전으로 선포한 500만 나주 관광 시대 도래를 목표로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미식, 레저, 농촌, 여행, 관광기획, 학예연구, 미술관광 등 관광 콘텐츠 성공사례와 명망을 두루 갖춘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졌다.

나주시에서는 강영구 부시장과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2025년 나주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 등 나주 관광 발전 싱크탱크를 담당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영산포 흥어 축제 기간인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축제 현장을 비롯해 주요 관광 명소, 현안 사업대상지를 탐방했다.

이틀에 걸쳐 나주목사내야, 천연염색박물관, 북암리고분전시관, 불회사, 남평역, 관촌분교, 옛화남산악, 나주정미소, 나주나빌라문화센터 등을 둘러봤다.

탐방 이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나주 관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공유·제안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대한민국 NO.1 곡성멜론 2023년 첫 출하 시작

곡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이 올해 첫 출하를 시작한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곡성멜론 주식회사와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멜론 생산에 돌입했다.

곡성군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크며, 이로 인해 일조 효율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곡성멜론은 당도가 높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품질 향상을 위해 육묘부터 최종 선별 작업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고품질 멜론 생산에 주력해 왔다.

특히 곡성군은 곡성멜론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개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멜론의 6차 산업화 인프라를 조



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에는 멜론 작물로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성공했으며, 172톤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해 505,729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이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곡성멜론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